

2020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(일반·기획) 심의 총평

코로나19로 인한 '사회적 거리두기'가 계속되면서 많은 일들이 미루어지고 취소되는 가운데 계획했던 지원 방식을 재조정하며 지원규모의 수를 늘리는데 심의위원 모두 합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.

일반 공모는 총 25개의 단체, 기획 공모는 총 4개의 단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.

전체적으로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,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실천 방법을 고려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지역의 여건을 이해하고 그 속에 공동체를 이루는 주민의 개별성에 관심을 두고 다가설 수 있는 기획에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.

다만, 장애인과 가족, 경력단절 여성, 이주민, 다문화 가족을 대상화 시킬 우를 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일반 공모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 방향과 내용, 그리고 참여자인 지역주민의 특성 등 이 지역사회 맥락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의 이해와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발굴과 문화예술교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획 공모의 경우 신청단체 중 맥락을 해독하기 어려운 사업과 기획수준, 내용이 우수하지만 창작영역에서 환영받을 기획이 있었습니다. 사업의 성과 및 결과가 단체 차원, 지역사회 차원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지역 공간을 거점으로 협력 주체와 협업 과정,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확산 등 실천이 가능한 단계별 전략을 잘 구성해서 과정의 성과들이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올해 지원 사업의 현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며 선정단체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'사회적 거리두기'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시도들,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심의위원

서지혜

송수연

박이창식

임학순